"安의 눈물, 정치개혁 '백신' 되길"

안철수 사퇴 광주·전남 시도민 반응

"단일화 약속 지킨 아름다운 결단 … 민주당 쇄신 노력 뒤따라야"

안철수 대선 후보의 전격 사퇴 소식에 광주·전남지역 유권자들은 안타까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다수가 '단일화'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아름다운 결단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.

하지만 야권후보 간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던 유권자들은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. 특히 안 후보의 사퇴로 인해 그의 지지층과 부동층의 이탈이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.

이에 따라 야권 단일후보 자리에 오른 문 후보가 정권교체라는 대명제를 완수하려면 안 후보가 '미완의 숙제'로 남긴 정치개혁·혁신을 완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.

▲**천성권**(52)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교수=문재인 후보에게는 기회라기보다 위기다. 안철수 식의 정치개혁을 담아낼 수 있는 민주당의 진심 어린 노력이 필요하며, 그렇지 못할 경우 안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.

▲**최지호**(45)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=단일화할 경우 문재인 후보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. 안철수의 추상적이지만 좋은 가치가 민주당의 혁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.

▲**김재봉**(48) 밝은광주안과 원장=단일화 협상이 길어지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. 후보 단일화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준 안 후보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.

▲**정진욱**(47) 미지예 피부과 원장=아쉬운 결정이었다. 아직은 우리에게 정치 개혁은 멀었다는 생각이다.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절차와 협상이 부족했다는 점에 가슴이 아프다.

▲**강연균**(72) 서양화가=한국 정치에 이러한 순수하고 용기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한다. 안 후보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정치권이 발전하고 미래가 밝아질 것 같다. 결과적으로 야권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.

▲**황정아**(47)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=단일화된 것은 기쁘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. 하지만 민주당이 쇄신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.

▲**전창언**(46) 광주은행 사회공헌국 부실장=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됐어야 했다. 안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된 것 같다. 하지만 이제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적극 도와 새 정치를 펼쳐야 한다.

▲**김용재**(43)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=단일화 과정이 감동을 줬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. 하지만 정권교체라는 대의 실현을 위해 이번 단일화의 의미가 희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.

▲**김성일**(48)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회장=현명한 결단이었다. 두 후보가 생각하는 농업 관련 공약들이 많은 부분 일치한다. 앞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고민이 정책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.

▲**김현석**(47) 여수 디엔씨어학원장=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, 교수로서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로 각인되는 멋있는 결단이었다. 문재인 후보가 안 후보 지지층에 어떤 감동을 주는냐가 중요하다.

▲**나형선**(42) 여천초 교사=안 후보의 정치적 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한다. 안 후보는 이번 결정으로 5년 후 엄청난 지지세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.

▲**양경완**(67·사업·경기도 성남)=중도하차하게 돼 안타깝다. 안 되더라도 여론조사까지는 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한국정치의 업그레이드에 분명한 역할을 한 것으로 위안을 삼고 싶다.

▲**최정희**(39·변호사)=안 후보가 약속을 지켜낸 것에 대단하다고 느꼈다. 계속 버텼으면 자신의 기득권을 가졌을 텐데, 과감히 결단하는 모습에 보기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미숙한 느낌도 받았다.

▲**정상욱**(29·롯데기공 비정규직)=정당 대 개인의 '밀리는 단일화'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. 안 후보의 열렬한 지지자는 기권하거나, 부동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.

▲**양환준**(24·전남대 동물자원학부생)=안 후보의 이번 결정이 혹시 부정적으로 비추어진다면 대선에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다. 이번 일로 안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.

▲**정영균**(27·취업준비생·광주시 북구 운암동)=안 후보나 문 후보 두 사람 모두 대선 후보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. 문 후보가 큰 결심을 한 안 후보의 뜻을 잘 받아들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.

▲**박성주**(49·무직·화순군)=이번 선거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. 국민이 납득할 만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실망감에 등을 돌릴 것이다.

▲**신석춘**(47·중장비기사·화순군)=단일화를 하지 않고 사퇴해 아쉽다.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 후보를 선택하겠다.

/채희종기자 chae@kwangju.co.kr

떠나는 안철수 우는 박선숙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뒤 캠프를 떠나며 승합차에 오르고 있다. 박선숙 선대본부장이 눈시울을 붉힌 채 뒤따르고 있다. /연합뉴스

사퇴 했지만 대선 승패 안철수에 달렸다

향후 행보따라 대선정국 출렁일 듯

사퇴 다음날 여수 내려와 심신 달래

무소속 안철수 전(前) 대선 후보가 전격 사퇴했으나 그의 행보는 18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.

대선 구도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안 전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중도층 표심의 향배가 결국 대선 승패를 가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.

일단 안 전 후보는 지방으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며 향후 행보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하지만 안 후보가 당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. 안 후보가 사퇴 회견에서 "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"이라고 밝혔지만 격앙된 어조로 단일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언급한 만큼 문 후보에 대한 감정의 앙금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.

특히, 25일 문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"안철수 후보의 진심과 눈물은 저에게 무거운 책임이 되었다"며 "저의 몫일 수도 있었을 그 눈물을 결코 잊지 않을 것"이라고 다짐했지만 안 전 후보가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.

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흔쾌히 도우려면 최소한 가치연대와 정책연대를 기반으로 한 '국민연대'의 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여기에 현재의 민주당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치 쇄신의 청사진과 안 후보 진영을 보다 폭 넓게 포용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.

안 전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"오늘 문 후보의 기자 회견을 보니 아쉬운 점이 많다"며 "겉으로는 몸을 낮추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'단일화가 됐으니 승리할 수 있다'는 오만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"고 말했다.

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후보 측에서 충분한 내부 논의와 안 전 후보 측과의 물 밑 접촉을 통해 조만간 국민연대의 틀을 만들어 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. 정치권 관계자는 "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치 일생을 '올 인' 한 상황에서 문 후보와 안 전 후보가 엇박자를 낸다면 대선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"고 말했다.

한편 안 후보는 대선 후보 전격 사퇴 선언 다음날인 24일 여수의 처가를 방문한 뒤 25일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/여수=임문택기자 mtlim@

서울시장 양보로 대권후보… 정당벽 못넘어

安 출마에서 사퇴까지

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기업인이었다. 그러던 안원장을 전국적인 인물로 변신시킨 것은 2009년 6월 MBC '무릎팍 도사' 였다.

안 원장이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박원순씨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면서부터다. 어떤 조건도 없이 이뤄진 당시 결정은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. 이후 안 원장은 일약 대통령 후보로 부상했다. 그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보였고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'박근혜 대세론'를 흔들어놓았다.

정치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린 지 1년여 만인 지난 9월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. 안 후보의 화두는 정치쇄신이었다.

이후 안후보의 지지율은 수직 상승했다.

지난 6일에는 문 후보와 등록 전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. 이날 두 사람은 대선 후보등록일(25~26일)까지 단일화를 포함한 7개 사항에 합의했다. 이후 양측은 새정치공동선언팀과 단일화 룰 협상팀이라는 정치 협상을 진행했으나 순조롭지 못했다.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 협상이라는 비난이 이어지면서 안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했다.

'새 정치'를 표방했던 안 후보는 결국 지난 23일 여전히 높은 정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"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"며 이번 대선 무대에서 퇴장했다.

/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

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
2013학년도 모집분야
▪석사과정(야간) : 광주반, 여수반
▸특별전형('12. 12. 5까지 접수)
▸일반전형('12. 12. 19까지 접수)
▪최고정책과정 ▪관리자과정
전화 062-530-5196 FAX 530-2266
홈페이지 : http://cnugpa.kr